트럼프 포비아는 허구다

한 용 수의 돌직구

요즘 화두는 '트럼프'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골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이다.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도 면접이나 논술 소재로도 트럼프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뱉은 말들은 무시무시해 이른바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수출국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글로벌 경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전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트럼프는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해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세 인상 방안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이다. IEEPA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무역법은 외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미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포비아에 빠진 양상이다. 우리 기업 약 절반은 내년 긴축경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중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계획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 중 긴축 경영 계획을 세운 곳은 61%로,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된 요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이 꼽힌다. 여기에 '미, 중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기업들의 투자를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경총 조사 응답 기업의 82%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 긍정 영향이 클 것으로 본 기업은 7.5%에 그쳤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포비아를 경계해야 한다'는게 요지다. 각국 정부가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할 경우 트럼프의 공약 의지는 더 심화하는 악순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1기 때와 달리 연임이 없는 시간적 제약, 그의 공약과 다른 공화당 내부 사정,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와의 모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hys@metroseoul.co.kr

시골 청년 70대

기자 수첩

김 연 세 〈정책사회부〉

10년 전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는 마흔살(40.0세)이었다. 남자들(38.8세)은 30대 후반으로 더 젊었다.

이후 10년간 다섯 살 넘게 더 먹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국민들 나이의 평균값은 45.3세까지 치솟았다. 역대 가장 많다. 남자(44.2세)는 40대 중반에 달했고 여자(46.4세)는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 전남과 경북 여성 거주민의 경우 지난달 평균 나이가 각각 50.7세, 50.4세까지 올랐다.

TV프로그램 OO내고향을 보면 농촌에도 젊은이는 있었다. 80대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장에 가서 판다. 90대 할머니·할아버지도 간혹 출연한다. 그리고 시골 경제를 이끄는 주축은 70대다. 이들이 바로 현재 국내 농촌지역 젊은이들이다. 60대·50대는 화면 속에서 보기도 힘들뿐더러 동네에서 어린이 취급 받는다.

이 분들마저 떠나면 어찌 될까. 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설계 중인 농업·농촌의 미래는 어떨지….

11월 말 기준 전국 총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인 19.9%에 달했다. 5122만 명 가운데 1019만 명이 65세이상이다. 한두 달 내에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 기준 노인 비중은 12.7%에 불과했다. 당시엔 그리고 14세이하 유소년 인구(14.2%)가 65세이상보다 많았다. 현재 총인구에서 유소년(10.7%)은 역대 최소까지 내려왔다. 노인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도3촌'(나흘은 도시, 사흘은 농촌 머물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전국 각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시골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책이다.

이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지 전용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10평(33㎡)까지 설치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양평 수미마을에 조성된 이른바 4도3촌형 체험시설을 둘러본 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이든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kys@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1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나라 밖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48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할 일도 많다. **60년생** 다툼이 있으면 자녀의 도움을 받아라. **72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84년생**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니.

37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마음이 슬픈 하루. **49년생** 성실하다 보면 어제의 고난이 오늘 웃음을 준다. **61년생** 이만하면 원더풀한 인생. **73년생** 부족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도 는다. **85년생** 골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

38년생 산행도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62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74년생** 정확한 거절을 말해야 관계를 좋게 한다. **86년생** 망설이다가 시간만 간다.

39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인색하지 말 것. **5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하게. **63년생** 몇 년 전 없앤 재물은 생각하지 말자. **75년생** 이성을 만나 감정절제를 편안히 해야 만남이 연결. **87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감사한 날.

40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다 해소되는 기분. **52년생** 강을 건넜어도 배는 보관해 둬야 한다. **64년생**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 청소로 분위기를 정리. **76년생**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88년생** 구두쇠 작전보다는 힘을 실어줘라.

41년생 무지가 지식보다 더 큰 확신을 하게 하니 주의. **5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65년생** 예상외의 초대로 즐겁다. **77년생** 절이 싫으면 떠나든지 아니면 불평 말든지. **89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

42년생 변화가 있어도 미미한 수준. **54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66년생** 직장에서 말을 조심해야 대접받는다. **78년생**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미생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90년생** 웃을 준비를 하고 상담에 임하라.

43년생 그립고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운. **55년생** 조급한 결정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67년생**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된다. **79년생** 요령 찾다가 되는 일이 없으니 학창시절 의욕으로 도전. **91년생** 행복에 취해서 주변을 소홀히 한다.

44년생 중요한 일은 비밀스럽게 행하라. **56년생** 혼란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보자. **68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80년생** 재투자보다는 일단 은행에 저금으로 다시 자금계획을 설정해보라. **92년생** 이제라도 배워야 문제가 해결될 터.

45년생 바쁘다 보니 소지품과 휴대폰 분실에 유의. **57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잘 세우자. **69년생**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둬라. **81년생** 친구가 여행 가자는 변화가 있어도 부모님을 찾아뵙도록. **93년생** 배우자에게 기쁜 일이.

4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생각이 빛난다. **58년생** 이기심을 버리고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70년생** 용기가 역사를 만든다. **82년생** 횡재수는 허상과 같기도 하니 땀 흘려 노력하다 보면. **94년생** 언제나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날.

47년생 깊이 생각하면 나갈 길이 절로 보인다. **59년생** 서두르다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71년생** 헛된 희망에 비싼 값을 치른다. **83년생** 용띠와 거래에 행운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둘 것. **95년생** 저축하는데 무리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보자.

김상회의 四季

코스닥은 나스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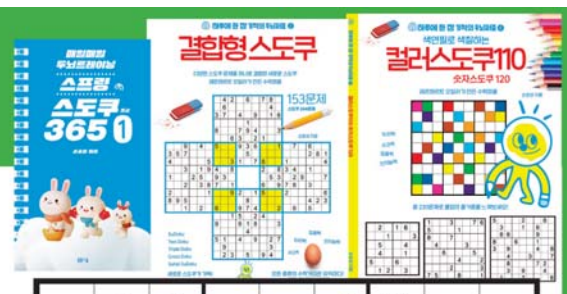
일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육체의 건강함과 정신적 책임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며 경제적인 용어를 알아야 재물을 벌어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주식투자를 시작하는데 처음 용어를 잘 몰라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나스닥과 코스닥이다. 왜 이름이 비슷한지, 어떤 종목이 거래되는 것인지, 다르면 무엇이 다른 것인지 헷갈린다. 먼저 나스닥을 보자.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주식시장이다. 나스닥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등록되어있는 주식시장이라고 보면 된다. 왜 벤처 중심의 주식시장을 만들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자본력 부족한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 즉 벤처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다. 처음에는 미국 벤처기업이 중심이었지만 나스닥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는 전 세계 첨단기술 업체들이 등록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처음에 장외시장으로 시작한 나스닥은 1971년에 개설됐다. 나스닥의 특징은 기술주 위주로 상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기술주는 IT전자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등을 말한다. 또 다른 특징은 재정이 적자인 회사들도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성격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한 뒤 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세계적 첨단기술 기업들이 모두 나스닥에 있다. 나스닥과 비슷한 코스닥은 한국의 기술주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은 나스닥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목적도 같다. 코스닥이라는 명칭도 미국의 나스닥을 한국식으로 만든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4	3		6	8
7						9		
	5			1				4
8					9		5	
	7		5					2
4				3			8	
		6						7
3	2		6	7		1		

	6	1			4	8		
						4	3	9
9		4						
3					2			
	7			5			9	
			8					1
						6		2
6	1	5						
		8	3			5	7	

3	2	5	6	7	8	1	4	9
1	8	6	4	9	5	2	3	7
4	9	7	2	3	1	6	8	5
9	7	3	5	6	4	8	1	2
5	6	2	1	8	7	4	9	3
8	4	1	3	2	9	7	5	6
6	5	8	9	1	2	3	7	4
7	3	4	8	5	6	9	2	1
2	1	9	7	4	3	5	6	8

2	9	8	3	6	1	5	7	4
6	1	5	2	4	7	9	8	3
7	4	3	5	8	9	6	1	2
4	5	9	8	7	3	2	6	1
1	7	2	4	5	6	3	9	8
3	8	6	1	9	2	7	4	5
9	3	4	7	2	8	1	5	6
8	2	7	6	1	5	4	3	9
5	6	1	9	3	4	8	2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김 승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